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일반 논술 문제지 (인문계열 I)

대학		학부 · 학과		수험 번호		성명	
----	--	---------	--	----------	--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의 수험번호 및 인적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써야 합니다.(숫자나 수식, 표 등은 예외)
- 답안지의 첫째 줄부터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찍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 가능합니다.
-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내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항별로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 지정된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일반
논술 문제지 (인문계열 I)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국인들이 똑같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단일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각 지역마다 고유한 방언(方言)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깍두기’라는 말에 대해 지역별로 ‘깍데기(강원)’, ‘깍닥김치(경남)’, ‘깍두지(경북)’, ‘나박지(전남)’, ‘똑깍지(전북)’, ‘깍뒤기(제주)’, ‘똑데기(충북)’, ‘나박디(평북)’ 등과 같은 방언 형이 존재한다.

같은 말이 방언에 따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서울에서도 한 가지 말에 대해 여러 가지의 발음 형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닭아’를 [다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닭는다’를 [당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땅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일반적으로’를 [일반저그로]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찌그로]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다. 다양한 발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표준어(標準語)와 표준 발음을 정해서 공적인 언어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표준 발음법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르면 표준 발음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기고서 일단 이를 따르도록 원칙을 정한 것이다. 예컨대 ‘값[價]’에 대하여 ‘값, 값만, 값이, 값을, 값에’ 등은 서울말에서 [갑, 감만, 갑씨, 갑쓸, 갑씨] 등으로 발음되는데, 바로 이러한 실제 발음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것이다.

말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려면 무엇보다도 발음이 정확해야 한다. 게다가 방언의 차이가 심하면 때로는 뜻이 잘 전달되지 않으므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표준 발음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석가모니가 설법을 할 때, 듣는 사람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내용과 방식을 달리 하였으므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해한 내용도 각각 달랐다. 석가모니가 열반하고 나자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자 자기가 이해하고 들은 것이 석가모니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의 견해는 옳지 않다고 비난하는 일이 많아져서 반목과 대립, 갈등이 심화되었다. 중국에 전래된 불교도 수·당 시대를 거치면서 종파는 더욱 많아지고, 여러 학파들이 생겨나서 쟁론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들 쟁론 중에는 기본적으로 세계관을 달리하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일은 신라에서도 일어났다. 중국으로부터 여러 갈래의 종파가 신라에 전래되었는데, 이들 종파들끼리의 반목, 대립은 정치 지배 세력의 분열과 국론의 분열 현상까지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효는 화쟁(和諍)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원효는 쪽빛과 남색이 하나이고 물과 얼음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처럼, 서로 다르게 보이는 주장도 모두 부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므로 모두 다 옳다고 생각하였다. 일체의 모든 이론은 결국 그 깨달음의 바탕인 일

심(一心)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인 마음의 진리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이 생긴다고 하였다. 화쟁 사상은 특정한 교설이나 학설을 고집하지 않고 비판과 분석을 통해 보다 높은 가치를 이끌어 내는 사상이며, 모순과 대립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다루는 사상이다.

(다) 사회의 분화에 따라 독신 가족 및 한 부모 가족, 재혼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변화했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해 2008년부터 민법상 호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체하여 국민 개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 그리고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가족 관계법(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우선 개인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장부인 호적 등본이 ‘가족관계 등록부’로 개편되었다. 지금까지 호적 등본에는 본인은 물론 다른 가족들의 인적 사항까지 전부 기록되었다. 그러나 새 등록부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인적 사항이 간략히 기록된다. 특히, 증명서에서 본적 칸이 사라지고, 개인이 원하는 곳을 ‘등록 기준지’로 정해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은 물론 법원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성씨와 본을 바꿀 수 있다.

(라) 성적 소수자는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이성만을 사랑하지 않는다. 동성에게만 사랑을 느끼거나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성적 소수자에 속한다.

성적 소수자는 역사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해 왔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성 정체성과 성적 대상에 혼란을 일으키고, 가족 제도를 비롯한 사회 제도를 혼란스럽게 변화시킬 위험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의학적 차원에서는 유아기의 성적 환상을 극복하지 못한 성도착자로 여겨졌다. 그리고 종교적 차원에서는 성적 소수자가 성적 행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즉 종족 보존을 무시하고 탐욕적인 성적 행위만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성적 소수자는 범죄자, 정신병자,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오인되어 전기 충격 치료, 뇌 수술 등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도 성적 소수자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커밍아웃을 한 성적 소수자는 주변 친지로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한다. 또한 능력이 있다 해도 성적 소수자임이 밝혀진 사람은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직업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려 하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아는 사람이 아웃팅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성적 소수자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어렵다.

성적 소수자는 사회 제도에 의해서도 배척당한다. 동성애자가 수술을 해야 할 때, 다른 동성애자는 보호자로서 수술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거하는 동성애자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혈 규정이나 군대 규정에는 남성 동성애자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차별적 규정들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문화를 조장하고 동성애자에게 성 정체성으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 밖에

도 우리 사회에는 성적 소수자가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개인 간의 능력 차이와 노력 여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불균형을 강제로 조절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 간의 소득 격차와 계층 현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계층 간의 과도한 소득 격차, 지나친 부의 편중과 세습 그리고 불평등한 기회 제공 등이 고정화된다면, 사회 통합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는 경쟁 상태에서 발생한 지나친 부의 집중화와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인정될 수 있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우선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기회 균등의 원칙)는 것이고, 다음으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차등의 원칙)는 것이다. 여기서 차등의 원칙이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불평등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 체제와 경제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개인이 발휘한 능력에 따라 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경제적 분배가 각 개인의 경제적 기여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천적인 조건에 의해 경제 활동에 적절한 기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선천적으로 앞을 볼 수 없거나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타고난 자연적인 자질은 우수한 두뇌를 타고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건강한 신체를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은 서로 다른 사회적 여건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므로, 처음부터 서로 다른 부의 분배를 배정받게 된다. 개인은 태어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여건에 대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없었으므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배분이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남게 된다.

자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불평등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일환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타고난 선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며 사회에 존재하는 약자들에 대해 최대한의 배려를 추구한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분배의 기준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 특히 그가 제시한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의미가 있다.

(바) 농사짓는 이는 전지(田地)를 갖게 하고, 짓지 않는 자는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閭田制)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뜻이다. 여전법이란 무엇인가? 산골짜기와 독의 형세를 보아 가며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경계선을 긋고, 그 일정한 구역 안에 포함된 곳을 여(閭)라고 부르자. 여 셋을 합쳐서 이(里), 이 다섯을 합쳐 방(坊, 한나라 때의 행정단위로 우리나라에도 있었음. 오늘날의 동과 비슷함)이라 하고, 방 다섯을 합쳐 읍(邑, 주나라 때의 행정단위로 지금은 군의 행정 중심지임)이라 하자.

여에는 여장(閭長, 여의 우두머리)을 두고, 1여의 전지는 1여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며,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는 경계선을 없애고, 여에 관한 일을 여장이 관리하게 한다. 사람들이 하루 일할 때마다 여장은 개인의 노동량을 빠짐없이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추수 때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마당으로 가져오게 한 뒤 곡식을 분배한다. 먼저, 관청에 바치는 세금을 제하고, 여장의 녹봉(祿俸, 봉급)을 뺀 다음, 나머지 곡식을 노동량에 따라 사람들(여민, 閭民)에게 배분한다.

가령, 세금과 여장의 녹봉을 뺀 나머지 수확물이 1000곡(斛, 1곡=10말=1섬=2가마=100되. 따라서 1000곡은 100,000되)이고, 장부에 기록된 노동일이 2만 일이라 한다면, 1일의 노동에 해당하는 곡식 분배량은 5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계산에 따라, 어떤 집에 부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 등 식구 전체가 일한 날이 800일이면 배당을 받는 곡식은 약 40곡이다. 또 가령, 어떤 사람의 노동 일수가 10일이면 돌아오는 몫은 5말(1가마)일 뿐이다.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곡식을 많이 받고, 노력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적을 것이니, 어찌 힘써 일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힘써 일하면 땅에서 얻는 이익도 늘어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재산이 늘고, 재산이 늘면 풍속이 순후해지고, 효제가 자리 잡힐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 다음은 미국 피츠버그의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아이, 빌 스트릭랜드의 삶에 관한 이야기 중 일부이다. 빌은 고등학교에서 도자기 공예 선생님을 만나고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성공을 일구어 냈다. 그는 30년 동안 맨체스터 비드웰이라는 직업 훈련 센터와 지역 사회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 사회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의 짐 또는 자선과 원조가 필요한 사람들로 치부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공동체의 자산이고,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가치 있는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제 기업이 우리를 후원하는 것은 더 이상 사회적 의무감의 발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훈련 과정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회사 장부상으로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의 이해와 도시 빈민가 사람들의 이해가 교차하는 접점을 찾아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를 뒤집었다.

(중략)

가난은 마음의 암이다. 나는 이 사실을 체험으로 안다. 평생의 경험과 피츠버그에서 30년간 성공의 세월을 통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거나 무너진 그들의 삶을 바로잡겠다는 사회 정책을 창안하려는 것만으로는 이 암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난을 치유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

기 이전에 ‘인간’임을 이해해야 하고, 인간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아름다움, 질서, 목표 의식, 기회와 같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 기본 자양분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 왜는 짜샤, 우리가 주인이잖아!

한국인 직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것이 그들의 명분이었다. 추우면 너희 나라로 가라는 말도 나왔고, 너희들은 원래 난로 같은 것 없이 살아왔지 않냐는 말도 나왔고, 급기야 까불면 모조리 신고해서 붙잡혀 가도록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회사가 잘되던 때까지만 해도 같은 직원으로서 오순도순 지내던 동료들이었다. नेपाल 말로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던 유순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쌓아 왔던 우정은 모두 소용없었다.

우리는 직원, 너희는 노동자.

우리는 주인, 너희는 노비였다.

우리가 쓰는 것이 화장지라고 한다면 너희가 코 푸는 것은 휴지라는 것이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화장실이라면 너희가 똥 싸는 것은 변소라는 식이었으며, 우리가 먹는 밥이 식사라면 너희가 먹는 밥은 여물이라는 것이었다. 우리와 너희는 철저히 달라서,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기온이 내려가면 춥다는 사실조차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춥고 배고프고 천대받도록 애당초 설계된 종족들에게 난로가 뭐 필요하냐고, 그들은 갑자기 표변하여 소리 질렀다.

싸움은 먹살잡이 사태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수적으로 적은 데다가 힘에서도 열세였기 때문에 간신히 치고받고 하는 정도까진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자기들 방으로 돌아갔고 외국인 노동자 또한 손이나 쪼일 만한 전기난로를 중심으로 모여 앉았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스물두 살짜리 알리가 훌쩍거리고 울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다. 한국에 온 지 여섯 달 된 알리는 안동 어느 시골에서 올라온 한국인 청년과 유난히 친해서 의형제처럼 지냈다. 한국인 청년은 스무 살로서 알리를 부를 때에도 꼭꼭 알리 형, 알리 형, 이라고 불렀다. 추우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친 청년이 바로 그 자였다.

그때, 경찰을 앞세우고 그들이 다시 들이닥쳤다. 난로를 끝내 힘으로 빼앗아 가지 못한 한국인 직원들이 경찰까지 부르리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사태가 절망적이라고 여긴 나이 어린 알리가 먼저 북쪽 창으로 몸을 날렸고, 카밀은 득의만면 앞을 가로막고 나서는 한국인 직원의 옆구리를 들이받고 옥상 마당 끝까지 도망쳤다고 했다. 공장 뒤편의 시멘트 바닥에 추락한 알리가 일어서지 못하고 상처받은 짐승처럼 버르적거리는 걸 카밀은 보았다.

“내가 왜 뛰어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카밀은 스스로 고개를 가웃했다.

옥상 마당의 끝까지 달려가 난간 위에 올라섰을 때 카밀을 둘러싼 것은 경찰관이 아니라 한국인 직원들이었다고 했다.

(중략)

“죽고 싶었던 것도 같아요.”

카밀은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에요. 나는 난간 위에 서 있고 개는 비상계단 쪽 가로막고 서 있었지요. 확 달려들어 개를 밀어 버리면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때, 개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어디 뛰어내려 봐. 개 눈빛,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냥 뛰어내려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요, 지금 생각해 보니 아, 아니에요. 양, 양반, 그거 생각났어요. 개가 만날 자랑하던 양반 할아버지요. 한국의 양반은 죽인다고 해도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왕 앞에서도요. 개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개가 얘기해 준 양, 양반 생각이 났구요, 그러니까 쪽, 쪽팔리는 기분 들었어요. 누나도 쪽팔린다, 그런 말 알지요? 쪽팔려서요, 쪽팔리지 않으려구요, 붕 하고 나른 거예요, 내가. 허리 굽히기 싫어서요…….”

카밀은 히히, 하고 바보처럼 웃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차이를 대하는 방식’을 각각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30점, 500~52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와 (바)에 나타난 상황을 각각 평가하고, (바)의 ‘여전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하시오. **[40점, 540~560자]**

[문제 3]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제시문 (아)에 나타난 상황을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시오. **[30점, 500~520자]**